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4(土)	5(日)
	
구름 조금 14/26℃	차차 흐려짐 14/26℃

News

- 호남 도로 건설 차질 ②
- 최진실 '자살' 잠정 추정 ③
- 장애인 체전 내일 팡파르 ⑧

Books

- 황동규 등단 50년 산문집 ⑭

Entertainment

- 광주출신 아이돌 스타 ⑧



- 소설 감동 영화속으로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인삼 ⑬



우림식품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지 내로 명품농산물

남부대학교
www.nabun.ac.kr

새로운 탐구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최진실 '베르테르 효과' 모방자살 잇따라

광주·전남 4명 숨져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로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베르테르 효과'로 보이는 자살 사건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일 오후 2시10분께 나주시 산포면 국립나주병원에서 입원중이던 장모(여·34)씨가 환자복 하의를 이용해 흡연실 방범창에 목을 매 숨져있던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장씨가 최진실씨의 자살 소식을 들은 뒤 충동적으로 모방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다음날인 3일 새벽 0시40분께는 해남군 해남읍 모 아파트 10층에 사는 박모(여·55)씨가 욕실에서 압박붕대를 이용해 목을 매 숨져있던 것을 아들 이모(35)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방 자살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밖에 3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택에서 이모(여·30)씨가 압박붕대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날 낮에는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는 고모(56)씨가 목을 매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진실씨를 따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방 자살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필리핀 안제환씨의 '연탄가스 자살'을 흉내 낸 30대가 목숨을 끊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60대가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

▲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모방자살)=미국 사회학자 필립스가 자살률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18세기 괴테의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뒤 사랑에 실패하고 자살한 베르테르를 모방해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던 현상을 비유한 것이다.

암동 한 주택에서 김모(37)씨가 연탄 화덕에 번개탄과 연탄을 피운 채로 숨져있던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일 오전 6시55분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철길에서 주모(64)씨가 부산행 무궁화호 19×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주씨가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었고, 술을 마실 때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미뤄 스스로 열차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민 전남대병원 우울증임상연구센터장은 "유명인들의 행동이 대중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은 우울증 환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끝내고 싶다" "짐이 된다" 등의 말을 자주 꺼내거나, 갑자기 몸 치장을 없거나 대인관계에 소홀하면 자살 징후로 판단하고 빨리 정신과 전문의를 찾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인현주·강필성기자 ahj@kwangju.co.kr

국산 유제품 534건 검사...멜라민 안 나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버터·발효유 등 국산·수입 유제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대대적 멜라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3일, 지금까지 수거한 642건의 분유 등 국내산 유제품 가운데 534건에 대해 검사를 마친 결과 멜라민 성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타투아사(社) 등 뉴질랜드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유가공품에서도 멜

라민은 나오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멜라민 검사 대상인 428개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검사도 이날 현재 60%(257개 품목)가 마무리됐다. 현재 판매금지 해제 품목은 115개로 늘었으며, 멜라민이 검출되거나 제조업체가 다른 일부 제품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313개 품목은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식약청은 다음주 초반 일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혜수



뮤지컬 '시카고' 관능의 무대

'세계에서 가장 관능적인 뮤지컬'로 꼽히는 '시카고' 광주 공연이 3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시카고' 공연은 4일(오후 3시·7시30분)과 5일(오후 3시) 3차례 더 공연되며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엔날레 특수' 대인시장 북적

개막 한달 ... 작품 훼손·바가지 요금 문제

5일로 개막 한달을 맞은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미술계에 술한 화제를 뿌리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개막 한달 동안 내로라 하는 국내외의 유명 미술관계자들의 앞다투어 광주를 찾고 있으며 무료 관람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막과 동시에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작품이 훼손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발적 관람객 크게 늘어=이번 2008 광주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짜손님'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단체 동원과 무료 티켓 배포를 통해 관람객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전시의 질을 높여 자발적인 관람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재단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올해는 단 1장의 초대권도 발

행하지 않았다. 이번 비엔날레의 관람객 수는 지난 2일 현재 12만 여명으로,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대회의 관람객 70만명 가운데 무료 입장객이 29만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이다.

또한 역대 비엔날레의 경우 프레스 오픈과 개막일 등 개막 일주일 기간에 국내외의 미술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찾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일시적인 방문러시가 사라졌다. 대신 개막 초기 130여명의 해외 미술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캐나다 밴쿠버비엔날레 배리 모앗 이사장 등 국제 미술계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안 색션의 '북덕방 프로젝트'가 열리는 광주 대인시장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으면서 빈 점포를 얻어 외국 관람객을 상대로 골동품

을 판매하는 상인이 등장하고, 상가의 매출도 20~30%가량 올랐다. 광주비엔날레가 대인시장에 새바람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작품 훼손 등 낙후된 관람문화 여전=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품 훼손 등은 시급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막 3일만에 작품 4점이 파손돼 '문화수도' 광주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뮤지컬 '시카고' 티켓 현장 구입 가능합니다

- ▶ 4일 (오후 3시·7시30분)
- ▶ 5일 (오후 3시)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뮤지컬

세계에서 가장 관능적인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

10.3~10.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www.kwangju.co.kr

CHICAGO